

제 96 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09.03.23)

한일협력의 비전과 장애물

오오니시 유타카
고베대학 법학연구과 교수

한반도 주변 정세변화에 대해서는 평화체제와 다자 안보협의체로의 전환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경우, 대일관계는 한국의 외교정책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으며 대북지원을 위해서는 일본측의 ‘부담’도 있어야 하고, 6 자회담을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로 승격시키기 위해서도 일본의 역할, 그리고 한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한일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발전을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근본주의적 시민사회운동의 논리를 넘어서는 화해와 통합의 논리 개발과 확산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양국 내의 극단주의자들을 봉쇄하고, 협력을 위한 초국가적 시민연대를 구축하는 것이 양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와 외교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한 일본과 한국의 문화적, 인적 교류도 필요한데, 최근의 한일 관계를 조망해볼 때 역사인식문제와 영토문제 등으로 인해 정치와 외교 관계가 긴장된다 하더라도 문화적, 인적 교류 분야가 급격하게 냉각되는 구조는 아니며, 한일 관계는 기존보다 더 성숙된 양자 관계가 구축되기 시작되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한일 양국의 정치와 사회 정세의 전망과 한일 문화, 인적 교류, 동아시아 안전보장과 평화협력 등에 대해 의논할 필요가 있다.

<Q&A>

Q. 한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도와야 한다는 의견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왜 한국이 완전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은 일본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어서,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실재로 경제적인 차이가 크게 작용한다. 방문해 본 도시가 서울이라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닌가.

A.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한국은 개발도상국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사실상 일본의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발전되어 있다. 물론 지방과의 차이가 큰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우선 일본과 물가만 비교해도 거의 차이가 없거나 서울의 경우 더 비싼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의 세계적인면에서의 경제적 위치, 경제적 규모, 보유하고 있는 문화사회 정치적인 힘을 보면 이미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확실한 선진국의 대열에 안정적으로 들어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점에서 나는 한국을 경이롭고 대단한 나라라고 방문할때마다 생각한다.